

비트겐슈타인의 'Criterion' 개념

김 영 배

목 차

- 0. 들어가는 말
 - 1. 의미와 사용
 - 2. 의미와 문법
 - 3. 의미와 criterion
 - 4. 의미이해와 설명
 - 5. 맺는말
- 참 고 문 헌

0. 들어가는 말

현대 의미철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언어분석을 철학의 일차적인 임무로 간주한다는 데에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의미에 관한 해명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과학적 이론이든 철학적 이론이든 도대체 생산적인 결과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철학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일철학(*prima philosophia*)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철학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분석철학'의 이러한 입장의 배후에는 전통적 철학에서 골머리를 썩여가며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들의 대부분이 의미에 대한 올바른 분석을 간과하거나 무시함으로써 생긴 사이비 문제(*pseudo-problem*)였었다는 아주 당돌한 진단이 숨어있다.

과연 이러한 진단이 올바른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할 수 없고 또 이 글의 관심의 영역 밖의 문제이다. 아무튼 이러한 철학관이 불러일으켰던 긍정적 혹은 부정적 반응으로부터 다시금 철학의 정체성(*identity*)문제에 우리의 주목을 환기시켰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점이다.

이러한 새로운 '철학의 자기규정'은 바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입장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주목해야할 점은 철학에 대한 새로운 개념규정으로서의 이

러한 입장은 「논리철학논고」로 대표되는 전기의 철학이나 「철학연구」로 대표되는 후기의 철학을 막론하고 일관되게 고수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는 흔히 비트겐슈타인 자신이 나중에 「논리철학논고」에 피력된 자기 견해에 대해 -비록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신랄히 비판한다는 점으로 인해 덮혀져 버리기 쉬운 부분이다. 의미론에 대한 견해는 비록 달라졌지만 의미에 대한 관심만은 줄곧 변함이 없었던 것이다.

이 글에서 우리는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만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 이유는, 비단 필자가 기본적으로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철학하는 방법에 더 호감을 갖고 있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한 개인의 철학적 변모 내지 사상적 전기에 있다가 보다는 특정한 철학적 이론에 있기 때문이다.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사상이라고 불릴수 있는 내용들은 「철학연구」 및 이책의 입문서 격이라고 할 수 있는 「The Blue and Brown Books」, 「Zettel」 그리고 가장 말년에 쓰여진 저술이라고 하는 「확실성에 관하여」 등에 주로 담겨져 있다.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관심은 방대한 것이었지만 기본적으로, 그의 철학적 입장에 미루어 볼 때, 의미론적 관심이 가장 일차적인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의미이해에 대한 해명의 노력을 좇아볼 것이다. 이의 구체적인 수행을 위해서, 필자는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의미론을 'criterion'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조망해 보고자 한다.

'Criterion' 은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대표해주는 '말놀이', '가족유사성' 등과는 달리 별 주목을 받기 시작한 개념이었으나, 수학과 심리학의 정초와 관련된, 사적 언어의 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개념이다. 이 개념에 대한 규명은, 최소한,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의미론의 성격을 밝히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1. 의미와 사용

1.1. 언어적 표현과 의미

과학적 이론이나 철학적 이론은 물론 우리의 일상적 대화에서 쓰여지고 있는 모든 언어적 표현들은 그것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한 의미있는(meaningful) 것이다. 그런데 한 언어적 표현-그것이 낱말이든 문장이든 간에-이 의미있는 것으로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의미에 관해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이 물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가지 상이한 물음의 복합체임을 알 수 있다. 그 첫째는 소위 유의미성의 기준(criterion of meaningfulness)에 관한 물음으로서 유의미한 표현과 무의미한 표현을 구별하는 준칙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다. 그 둘째는 한 언어적 표현의 의미가

어떻게 획득되는가에 관한 물음이다. 특히 둘째 물음은 오늘날 의미론을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누게 한 물음이다.

1.2. 의미론의 두 유형

의미론을 분류하는 방식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더구나 의미의 단위를 낱말(word)로 보는가 아니면 문장(sentence)으로 보는가에 따라 의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물음자체가 달리 제기될 수 있고 따라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한 낱말은 오직 하나의 문장 속에서만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Frege적 노선¹⁾을 일단 따르기로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 Davidson이나 Dummett과 같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보다 근본적인 방법론상의 물음, 즉 '의미론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물음²⁾과 관련된 의미론의 유형 구분문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일단 우리는 의미론의 유형을 진리조건적 의미론(truth-conditional semantics)과 의미사용론(use theory of meaning)으로 분류하겠다. 이들은 각각 비트겐슈타인의 전후기철학에 의해 대표되는 것으로서, 진리조건적 의미론은 언어의 외연성논제(extensionality thesis), 즉 진리함수성논제(thesis of truth-functionality)와 모사설(picture theory) 및 동형성(isomorphism)이론이라는 두가지 논제에 의존하여 의미를 설명하려는데에 반해, 의미사용론은 기본적으로 의미는 언어사용자와의 관련하에서 해명되어야 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여 의미현상을 말놀이(language game)의 규칙따르기(rule-following)라는 틀에 의존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진리조건적 의미론은—적어도 비트겐슈타인류의 의미론은—그 이론을 지지하는 논제들이 가진 문제점³⁾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부담을 논외로 치더라도 의미론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잡는다는 측면⁴⁾에서 볼 때 의미론일반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불충분하다. 비트겐슈타인 자신도 어쨌든 이런 입장을 고수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깨닫고 의미현상을 보다 폭넓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의 돌파구를 찾았다.

1) 비트겐슈타인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입장이다. "명제들만이 뜻(Sinn)을 갖는다. 명제 안에서만 이름은 의미(Bedeutung)를 갖게 된다. (TLP. 3.3 cf. 3. 314, 4.23)

2) 이 물음은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글의 목적과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취급하지 않았다.

3) 첫째, Quine (1953, pp. 20-46)이 비난하고 있는 환원주의(reductionism)가 안고있는 어려움과 둘째, 모사설과 관련하여 세계의 실재성을 주장하는 실재론(realism)이 안고있는 어려움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들이다.

4) 언어의 여러가지 기능 중 기술적 기능(descriptive function)에 관련된 의미현상에만 국한된 이론이라는 점은 바로 이런 진리조건적 의미론이 너무 협소함을 잘 보여준다.

1.3. 의미와 사용

앞서 언급했듯이 「논리철학논고」에서 비트겐슈타인이 취한 의미론적 접근을 가능하게 했던 기본가정은 언어가 가진 본질적 기능—그는 이를 세계를 그리는 (picturing) 기능으로 파악했는데—이 있어서 소위 언어의 본질을 밝히는 것이 철학의 임무라고 본 점이다. 그러나 우리가 ‘언어’라고 부르는 현상은 단일한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말하자면 다수의 ‘언어들’의 집합이다. 그리고 이런 언어들은 자기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연구」에서 여러가지 예로써 이점을 보여주고자 하는데 다음의 인용문은 그중에서 가장 압축적으로 이점을 잘 드러내 준다:

연장상자 안에 들어있는 연장들을 생각해보자; 거기에는 망치, 풀라이어, 톱, 나사돌리개, 자, 아교통, 아교, 못 그리고 나사 등이 있다.—날말들의 기능은 이러한 것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하다. (그리고 이 양자의 경우 공통점들이 있다.)⁵⁾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이처럼 다양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언어들로 파악하는 이상 언어적 표현의 의미를 일원론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는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언어들에는 자기 상이한 말놀이 (language-games)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의 말놀이 안에서 하나의 언어적 표현이 놀이규칙에 맞게 사용됨으로서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말놀이의 가장 원초적인 예를 다음과 같이 든다:

...그 언어는 집짓는 사람 A와 그의 조수 B사이에 의사소통을 하게 해주게끔 되어있다. A는 집짓는 재료들로 집을 짓고 있다: 거기에는 벽돌, 기둥, 기왓장 그리고 대들보 등이 있다. B는, A가 필요로 하는 재료를 A가 명령할 때마다 날라다 주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벽돌”, “기둥”, “기왓장”, “대들보”와 같은 날말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언어를 사용한다. A가 이 날말들을 소리쳐 말하면—B는 이러 이러한 소리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가져 가야한다고 배웠던 그 재료를 갖다준다. —이상의 것을 하나의 완전한 원초적 언어라고 간주하자. ⁶⁾

5) PI, sec. 11.

6) PI, sec. 2.

위에 예에서 “벽돌” 혹은 “기왓장” 등과 같은 언어적 표현들은 예컨대 집을 짓는다는 목적에 따라 (그리고 짓는 활동의 일부로서) 쓰이는 하나의 언어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이때 이들 “기왓장”, “대들보” 등은 각각 기왓장, 대들보 등을 가리킴으로써 의미를 갖게되는 것이 아니라 “X”라는 외침에 대한 이해, 즉 “X를 날라다오”라는 규칙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만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때, 의미론은 이해론으로 간주됨을 알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 자신은, 따라서, ‘의미란 무엇인가?’라는 물음대신에 ‘의미에 대한 설명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한다.⁷⁾ 그리고 ‘의미에 대한 설명’은 “의미에 대한 설명”이라는 표현의 문법(grammar)을 살펴봄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비트겐슈타인이 사용하는 “문법”이라는 말은 Moore의 보고대로 ‘언어사용에 관한 설명’(any explanation of the use of language)이다.⁸⁾

2. 의미와 문법

2.1. 사용과 말놀이

비트겐슈타인은 이처럼 의미에 대한 해명을, 한 언어적 표현의 사용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수행한다. 「확실성에 관하여」라는 그의 말기 저술에서도 이를 잘 표현해 준다.

...한 낱말의 의미는 그것의 사용이다. 왜냐하면 그 낱말이 우리의 언어의 일부로 들어올 때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사용이기 때문이다.⁹⁾

한 낱말의 의미를 한 관리의 ‘기능’과 비교해보라. 그리고 ‘상이한 의미들’을 ‘상이한 기능들’과 비교해 보라.¹⁰⁾

그런데 한 언어적 표현은 일정한 규칙으로 이루어진 말놀이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이런 뜻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어린아이의 언어습득과정을 1.3.에서 인용한 원초적 언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말놀이를 간주한다.¹¹⁾ 이때 ‘말놀이’라는 개념은 언어사용을 “놀이”(game)와의 유사점에 의해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적 도구로서,¹²⁾ 다

7) BB, P. 1.

8) Moore, p. 276.

9) OC, 61.

10) OC, 64.

11) PI, sec. 7.

12) PI, sec. 130.

음과 같은 방식으로 놀이일반과 말놀이의 유사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자율적 (autonomous)이다. 말놀이는 장기놀이처럼 내적인 완결성이 있다.장기에서 이김은 그 놀이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둘째, 정당화 (justification)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왜 그 놀이의 규칙들이 그러그러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규칙들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없다.

셋째, 규칙을 따라서 이루어 진다.

그리고 넷째, 그 규칙들은 유연성을 갖고 (flexible) 다양한 (varied) 것이다.¹³⁾

이상의 네가지 특성은 서로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서, 말놀이가 놀이일반과 마찬가지로 '삶의 양식'의 일부임을 잘 드러내준다.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삶의 양식'이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 ¹⁴⁾이다.

2.2. 문법적 규칙

앞서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이 의미론을 이해론으로 보고자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런데 이처럼 언어를 다양한 말놀이의 총체로 파악할 때, 이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비트겐슈타인은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한다.

...이해는 설명 (explanation)에 의해 이루어진다 : 하지만 또한 훈련 (training)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¹⁵⁾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설명이나 훈련이나 '언어사용에 관한' 즉 '문법적' 규칙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때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심층문법 (depth grammar)을 가리킨다. 언어의 '이상적인 논리적 구조'를 포기한 비트겐슈타인이 구태여 심층문법을 상정하는 것 ¹⁶⁾은, 비록 언어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자 ¹⁷⁾" 고는 했지만 철학의 임무에 관한 그의 일관된 견해 때문에 언어적 환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표층문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그의 '문법'이라는 개념은 '논리'라는 개념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¹⁸⁾

13) cf. Hallett, p. 69.

14) PI, p. 226.

15) Z, 186.

16) PI, sec. 664.

17) PI, sec. 66.

18) OC, 56.

그런데 문법적 규칙을 따르는 것은 일종의 관행 (practice)으로서 사회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규칙 따르기가 사회적 행위라는 말은 '사적으로' 규칙을 따를 수는 없다는 뜻이다.¹⁹⁾ (이점은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이해론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살펴 볼 'criterion' 개념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논제이다.) 언어란 하나의 언어공동체 안에서 존재하는 것으로서, 그 성원들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반으로 말놀이의 규칙들이 그안에 이미 주어져 있다.

2.3. 문법적 규칙과 criterion

우리가 하나의 언어적 표현을 제대로 사용하거나 또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법적 규칙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규칙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시적 정의 (ostensive definition), 필요충분조건을 제시하는 엄격한 정의 (strict definition) 등이 있다. 그런데 정신적 현상 (mental phenomenon)에 관해 우리의 관심이 집중될 때 이러한 방식들에 의해서는 설명이나 이해가 될 수 없다. 예컨대 '그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말은 고통이라는 현상이 정신적·내적 현상이기 때문에 지시적 정의로도 엄격한 정의로도 그 표현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고통을 받고 있다'와 같은 정신적 현상을 지배하는 다른 종류의 규칙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비트겐슈타인이 독특한 의미의 'criterion' 개념을 도입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인간의 삶의 일부로서 일어나는 언어행위에는 정신적 현상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고 따라서 이들 정신적 현상과 관련된 의미현상을 도외시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²⁰⁾

3. 의미와 criterion

비트겐슈타인에 있어서 'criterion' 개념은 '징후' (symptom) 개념과 함께 독특한 뜻을 갖는 개념이다.²¹⁾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준' (criterion)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19) PI, sec. 202.

20) 엄밀하게 말하면, 정신적 현상과 직접관련된 경우에만 criterion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1.3에서 인용한 원초적 언어에서의 말놀이의 경우에도 criterion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겠다.

21) 이 글에서 필자가 'criterion'을 그대로 적은 이유도 일반적인 뜻과 구별되는 비트겐슈타인의 technical term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다음의 세가지 서로 구별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²²⁾

첫째, “판단의 기관”(organ of judging)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예를들면, “진리의 기준은 감각이 아니고 올바른 이성이다”는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인식하는 주관의 어떤 기관을 가리키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둘째, “그것에 의해서 어떤 것이 판단되는 원리, 규칙 혹은 표준 등”을 뜻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셋째, “어떤 사물에 귀속되어 있는 두드러진 특징”을 뜻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3.1. symptom과 criterion

그렇다면 비트겐 슈타인이 사용하는 ‘criterion’ 개념은 어떠한 것인가?

어떤 기초적인 혼란들을 피하기 위해서 두개의 서로 대조적인 용어들을 도입하기로 하자: “사실이 이리이러하다는 것을 너는 어떻게 아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경우에 따라 ‘criteria’를 제시하기도 하고 ‘symptoms’를 제시하기도 한다. 만약 의학에서 후두염을 어떤 특정한 간상균에 의해 야기된 염증의 하나라고 부른다고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경우를 놓고 “왜 너는 이 사람이 후두염에 걸렸다고 하느냐?”고 질문을 한다면, “나는 그의 혈액 속에 이리이러한 간상균을 발견했다”는 대답은 우리에게 후두염에 대한 criterion 혹은 우리가 정의적 criterion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제시한다. 한편, 만약에 대답이 “그의 목에 염증이 있다”는 것이었다면 이 대답은 후두염의 symptom 중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된다. 경험이 가르쳐준 바에 따라 우리가 정의적 criterion이라고 말한 현상과 어떠한 방식으로 일치하는 현상을 “symptom”이라고 부르겠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간상균이 그의 몸속에서 발견되면 그 사람은 후두염에 걸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토볼로지, 즉 “후두염”에 대한 정의를 느슨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목에 염증이 생겼을 때에는 그가 후두염에 걸린 것이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의 가설을 세우는 것이다.²³⁾

22) Canfield, p. 31.

23) BB, pp. 24-5.

비트겐슈타인의 symptom과 criterion의 구별은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만약에 "If X, then Y"가 그저 경험적 참, 즉 가설이라면, X는 symptom이고 criterion이 아니며; 반면에 "If X, then Y"가 언어적 협약에 의해서 참이라면, X는 criterion이지 symptom이 아니다.²⁴⁾

그런데 criterion이나 symptom은 항상 "어떻게 그러그러하다는 것을 아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 주장이나 판단 등의 정당화(justification)로서 주어지는 일종의 증거(evidence)이다.²⁵⁾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현상이 정의적 criterion이고 어떤 현상이 symptom인지를 가려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²⁶⁾

3.2. 정의적 criterion

위에서 인용된 부분에 따르면 마치 'criterion' 개념은 더할나위없이 명백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과히 명백하지 않은 개념임이 드러난다. 어떤 사람의 혈액 속에 이리이러한 간상균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그가 후두염에 걸렸다는 판단의 criterion이라면, 그 사실은 후두염에 걸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조건인가? 아니면 그 사실이 확인되기만 하면 그가 후두염에 걸렸다는 판단이 옳은 것이 되는 충분조건인가? 아니면 그 criterion은 판단의 필요충분조건인가? 한편, criterion이 협약(convention)에 의해 정해진다면, 언어적 공동체가 경우에 따라 자의적으로 어떤 것을 criterion으로 삼고 어떤 것을 symptom으로 삼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가? 아니면 특정한 어떤 현상이 criterion의 지위를 차지할 근거가, 적어도 일부는, 협약 외적인 요소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 두번째 부류의 물음들은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철학 전반의 성격을 묻는 물음이다: "If X, then Y"가 그저 경험적 참, 즉 우연적 참이 아니라, 필연적 참이라면 그 필연성은 어떤 성격의 것인가? $X_i (X_i \in X)$ 와 $Y_i (Y_i \in Y)$ 사이에 실제로 맺어지는 어떤 관계로부터 성립하는 사실적 필연성(de re necessity)인가? 혹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 협약을 거친 후 성립되는 논리적 필연성(de dicto necessity)에 불과한가?

이 물음은 criterion을 비귀납적 증거로 볼 것인가 아니면 순전히 논리적 내지 정의적(definitive)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물음으로 바꾸어 제기될 수 있다.

24) Canfield, p. 32. 참조.

25) 여기서 증거라고 함은 경험적 증거만을 가리키는 좁은 뜻이 아니라 인식론적인 정당화의 근거라는 포괄적인 뜻이다.

26) BB. p. 25. 참조.

3.2.1. 비귀납적 증거로서의 criterion

Criterion을 비귀납적 증거(noninductive evidence)로 간주하는 견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겠다: "C가 S에 대한 criterion이다"라는 말은 "C가 S에 대한 증거이라는 것은 필연적 참이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의 특징은 criterion C와 명제 S와의 관계는 연역적 관계도 아니요 또한 단순한 귀납적 관계도 아니라는 점이다. 더구나 이는 '사적 언어'의 가능성에 대한 비트겐슈타인 자신의 강렬한 비판과 행태주의(behaviorism)의 잘못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과 잘 맞아떨어지는 듯하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고통을 느낀다고 말하는 데에 대한 정당화로서 행태적 criterion을 제시하면서도, 그런 행태가 나타났다는 것이 그 사람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함축(entail)한다는 달갑지 않은 논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C는 있지만 S가 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어떤 사람 A가 고통을 나타내는 행태(pain behavior)를 보인다고 하자. 그러나 이 사람은 다른 사람 B를 속이기 위해서, 실제로는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그런 행태를 보였다고 하자. 그리고 A의 행태는 그가 거짓으로 나타내지 않을 경우는 B가 "A는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명제 S의 행태적 criterion C_1 이라고 하자. 이럴때 B가 C_1 에 근거해서 S를 주장했지만 결국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S가 아니라고(not-S)판단했다고 하자. 그러면 B가, S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릴 때 그 판단을 지배하리라고 간주되는 criterion C_2 는 어떠한 것인가? 여기에는 두가지 답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즉 S가 아니라는 판단을 지배하는 criterion C_2 는 S이라는 판단을 지배하는 criterion C_1 과 같은 것이거나, 아니면 다른 것이거나 이다. 만약, $C_1 = C_2$ 이라면 C_1 을 가지면서 S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반면, $C_1 \neq C_2$ 이라면 새로운 criterion C_2 에 근거해서 S가 아님을 주장했다는 사실로부터 C_1 에 근거해서 S임을 주장한 것이 거짓이라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criterion을 비귀납적 증거로 간주하는 입장은 유지하기 매우 어렵다.

27)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는 Rogers Albritton(1959), S. Shoemaker(1963), A. Kenny(1967) 등이 있다.

3.2.2. 정의적 criterion 으로서의 criterion

3.1.에서 인용된 '정의적 criterion' 으로서의 'criterion' 은 다음의 두가지 주요한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²⁸⁾

첫째, criterion 과 criterion 에 의해 지배되는 사태 사이의 관련은 협약적인 것이다. 즉 언어적 협약은 인위적인 것이고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언어적 협약은 언어적 공동체의 모든 성원들이 동의한 것도 아니요 어떤 명백한 회합을 거친 후에 이루어진 것도 물론 아니다.

둘째, 일단 criterion 이 만족되면 그에 상응하는 사태가 존립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에 결정적이다. 여기서 criterion C가 S에 대해 결정적이라는 말은 C는 S의 충분조건이 된다는 뜻이다. 그렇다고해서, 바로 그 C가 바로 그 S를 논리적으로 함축(entail)한다는 것은 아니며 3.21에서 제시된 바 C가 S의 비귀납적 증거라는 견해와도 구별된다.

C가 S에 대한 criterion이라고 할 때, C가 현재 있다는 사실이 S에 대한 필요조건(necessary condition)이라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는다. C가 현재 있다는 사실이 그 사물이 현재 있다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한 사물에 대한 criterion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상황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criterion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⁹⁾

3.3. criterion 과 상황

상황(circumstances)은 criterion의 적용에 관여하는 요소이다. 상황이 서로 다름에 따라 한 표현에 대해 서로다른 criterion들이 적용되기도 하고, 상황이 서로 다름에 따라 동일한 criterion이 상이한 표현들을 지배하기도 한다.

그런데 도대체 비트겐슈타인이 "상황"이라고 부르는 용어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들어 있는가? 여기에는 우선 어떤 특정한 말놀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물리적 및 시간적 배경이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놀이가 일어나기 이전에 발생하는 일 그리고 그 말놀이가 일어나고 난 후 발생하는 일이 포함될 것이다. 뿐만아니라 그 말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조건도 포함될 것이다.³⁰⁾

28) Canfield, p. 36, 참조.

29) PI. sec. 164.

30) Canfield, p. 53.

비트겐슈타인은, 그러나, 어떤 화자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마스터했다고 해서, 그 언어중의 일부인 어떤 특정한 표현이 사용되는 환경을 잘 묘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이 “생각한다”라는 말, 즉 그 말의 사용을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배우지만, 그러나 그는 그 상황을 기술하는 것을 배우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의 사용을 어떤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그러한 환경에 대한 기술은 이 경우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그에게 그 말을 가르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아마도 인간에 대해서만 그 말을 하도록 배운다; 우리는 인간에 대해 생각한다고 단언하거나 생각하지 않다고 말하도록 배운다. “물고기들은 생각을 하는가?”라는 물음은 인간의 언어사용 중에는 있을 필요가 없고, (또) 제기되지 않았다.³¹⁾

어떤 사람이 한 도시의 거리를 완벽하게 알아서, 가령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지름길을 척척 찾을 수 있는 정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의 지도는 거의 그릴 수 없는 그런 경우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³²⁾ ...

이를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된다 :

한 사람이 어떤 말놀이(L_1)을 마스터 하면서도, 이 말놀이가 일어나는 환경(D)와 관계있는 말놀이의 문법적 규칙-에겐데, “‘C이기 때문에 S이다’라는 명제가 오직 D에서만 성립한다”와 같은 규칙들-은 말할 수 없을 수 있다.³³⁾

그런다면 상황이 criterion에 관여하는 방식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사실 비트겐슈타인은 이에 관해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는다. 가령 주어진 어떤 상황(D)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놀이(L_1)가 이전에 일어났던 말놀이와 동일한 것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 적용되는 criterion은 이전의 말놀이가 일어났던 상황(E)에서 적용되던 criterion과 같거나 다르거나 해야한다. 그런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D와 E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특정한 상황 E하에서 행한 말놀이가 D에서도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무엇이 보장해주는가? 아마 비트겐슈타인은 이

31) Z. 114-117.

32) Z. 121.

33) Canfield, p. 57.

것까지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이는 그가 하나의 말놀이는 “자율적” 이오, 따라서 그 말놀이 안에서 두어진 수(move)는 외적인 요소를 참조하지 않고도 제대로 두어진 수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다고 간주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상황과 관련된 문법적 규칙에 대한 지식은 criterion에 관한 지식—criterion과 인명과의 관계에 관한 지식—속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3.4. 의미와 criterion.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사용을 통해서 언어적 표현의 의미를 이해할 것을 강조한다. 「철학연구」에서의 한 귀절은 이를 압축적으로 잘 나타내 준다.:

말들의 사용이 그들의 의미를 너에게 가르쳐 주게끔 하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수학에서 흔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증명이 증명되고 있던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게끔 하라.)³⁴⁾

그런데 언어적 표현의 사용에 관련하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3.4.1. 사용에 관련하는 요소들.

사용에 관련하는 요소로서 첫째, 한 언어적 표현이 사용되는 배경을 이루는 것으로서, 사실들이 존재하는 방식에 관한 일반적인 사실들을 꼽을 수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특정한 개념들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들이고 다른 개념들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깨닫고 있는 무엇을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면 — 그로 하여금 어떤 매우 일반적인 자연적 사실들이 우리가 익숙해 있는 것과는 다를 경우를 상상해 보도록 해라. 그러면 보통의 개념들과는 다른 개념형성(Begriffsbildungen)이 그에게 이해가 될 것이다.³⁵⁾

두번째는 상황을 들 수 있겠다. 이 상황은 앞서 말한 배경적 조건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34) PI. pp. 220.

35) PI. p. 230.

로서, 비트겐슈타인은 이를 “외적 요인”(external occasions)이라고도 부른다.³⁶⁾

고통은 우리의 삶 안에서 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련들을 맺고 있다.(말하자면 :우리는 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련들을 맺고 있을 때만 “고통”이라고 부른다)

삶의 어떤 정상적인 실현들에 둘러싸여서만 고통의 표현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보다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삶의 실현들에 둘러싸여서만 슬픔이나 애정의 표현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³⁷⁾

세번째 요소는 바로 Criterion이다. 우리는, 예컨대, 쟁그리거나, 울거나, 소리를 치거나 아니면 “나는 고통을 느낀다”와 같은 표현을 통해 고통을 나타낸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의존해서 어떤 사람이 고통을 느낀다고 판단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배경조건이나 상황은 Criterion을 이루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러한 배경조건이나 상황 내에서 Criterion이 쓰여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네째로는, 언어적 표현이 말놀이 내에서 하는 역할을 들 수 있다. “그는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는 표현의 예를 다시 들어보자. 이 말은, 가령, 연극중의 대사의 일부분으로 쓰여서 상대역으로 하여금 다음 대사를 기억나게 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병원에 있는 환자에게 대해 이 말을 했을 경우 의사나 간호원을 빨리 데려오게끔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다섯번째로는, 사용의 심층문법적 특징을 들 수 있다. 이는, 어떤 표현이 그 표현과 관련을 맺게 되는가 라든지, 어떤 표현(예컨대 “나는 고통을 느끼고 있다”와 같은 표현)은 criterion에 의해 지배를 받을 수 없다든지 등을 말해준다.³⁸⁾

이상의 다섯가지 요소들은 직접·간접으로 언어적 표현의 사용을 결정해준다.

3.4.2. 의미와 criterion

이상에서 보았듯이, 한 언어적 표현의 사용을 지배하는 요소들은 크게 다섯가지로 분류된다. 그중의 한가지로서 criterion은 언어사용에, 그리고 결국 언어적 표현의 의

36) Z. 492.

37) Z. 533-544.

38) Canfield, pp. 72-75. 참조.

미에서 관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criterion이 바뀌면 의미도 바뀐다고 할 수 있겠는가? 반대로 의미가 바뀌면 criterion도 바뀐다고 할 수 있겠는가?

우선, criterion이 한 언어적 표현의 의미를 결정한다³⁹⁾고 할 때는, criterion의 변화가 의미의 변화를 반드시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의미가 변할 경우 반드시 criterion이 변할 필요는 없다. 의미, 즉 사용을 구성하는 요소는 그외에도 있어서 그들이 바뀔 경우 의미가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의미의 결정적 요소인 criterion이 그대로 있기만 하던 의미가 바뀌지 않았다고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비록 criterion이 배경이나 상황 그리고 심층문법적 특징과 같은 요소들보다 의미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더구나, 실제로는 criterion과 symptom의 구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criterion이었던 것이 symptom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⁴⁰⁾ 이는, criterion이 판단의 정당화를 위해 제시된다는 성격 — 인식론적 성격 — 으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 언어집단의 성원전체가 criterion을 모를 경우도 가능하며, 이때는 그들 모두가 그들의 말놀이에서 특정한 표현을 무의미하게 쓰고 있다고 말해야 하는데 이는 반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다.

이렇게 볼 때, 의미변화와 criterion의 변화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비트겐슈타인이 가끔 criterion의 변화가 의미의 변화를 야기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특수한 경우에 불과한 것이다.

4. 의미이해와 설명

여기서 잠시 우리가 한쪽으로 밀어놔두었던 문제로 돌아가 보자. 이는 다름아닌 규칙과 학습에 관련된 문제이다. 우리는, 한 언어적 표현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으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올바로' 사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이 사용되는 규칙을 따라서 사용되었다는 것인가? 올바르게 사용된 경우와 잘못 사용된 것을 구별시켜주는 기준을 우리가 그 언어적 표현을 학습할 당시 더불어 배우는 것인가?

문제는, 단적으로 말하면, 유한한 학습례로부터 어떻게 미래에 일어날 사용의 경우에

39) Hacker, p. 177.

40) PI, sec. 354.

김영배

까지도 적용될 규칙을 알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마치 귀납적 일반화의 일종으로 여긴다면 역설적인 결과가 나온다. 즉, 유한한 학습례로부터의 귀납적 일반화는 일종의 해석으로서 이 해석의 수는 원칙적으로 무한하다. 그러므로 “어떠한 행동방식도 규칙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행동방식이 규칙에 들어맞도록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⁴¹⁾ 그러나, “여기에는 일치도 상충도 없다.”⁴²⁾ 바로 이것이 비트겐슈타인이 제시하는 소위 ‘역설’에 대한 해답이다.

만약 위에서 말한 ‘역설’이 진짜 역설이라면 이는 가르침-학습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일반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더 나아가 의미자체가 언어 내에 들어설 자리를 박탈해 버릴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역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의 언어가 주어져 있고 의미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역설”이 진짜 역설이 아닌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일종의 순환론적인 고리에서부터 뛰어나올 수 있는 출구는 바로 언어의 ‘이미 주어져 있음’이라는 사실에 있다.

5. 맺는말

이 글의 시작에서부터,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의 일관된 철학관을 ‘치유로서의 철학’으로 규정했다.

... 철학이란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이 걸려든 마술과의 싸움인 것이다.⁴³⁾

이러한 치유는 ‘왜곡된 언어’를 바로 잡음으로써 이루어진다. 비트겐슈타인이 심층문법을 이야기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심층문법은 언어의 사용을 보여준다. 여기서 다시 비트겐슈타인은 “생각하지 말고 보라!”⁴⁴⁾고 외친다.

비트겐슈타인 후기철학은 바로 이러한 자세에서 출발한다.(누구나 느끼는 것이겠지만 「논리철학논고」의 언어는 정제되고 함축적이다. 그러나 「철학연구」의 언어는 산만하고 난잡하다. 그 언어들이 이미 그 책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잘 드러내준다.) 그는 언

41) PI. sec. 201.

42) PI. sec. 201.

43) PI. sec. 109.

44) PI. sec. 66.

어의 의미현상을 설명하기보다는 이해하고자 한다. 물론 그가 자신의 의도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아무튼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지를 관찰하고 기술하여 의미현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우리의 언어는 무수히 많은 '말놀이'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말놀이에는 비록 고정된(fixed) 것은 아니지만⁴⁵⁾ 규칙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들은 인위적이고 협약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삶의 양식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규칙과 더불어 사용이 정당화가 필요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그저 받아들여야 할 삶의 양식이란 우리의 기술 — 비트겐슈타인의 방식을 따라 — 이 더이상 나아갈 수 없는 마지막의 것인가? 비트겐슈타인이 비록 인류의 자연사(natural history)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의 눈은 "삶의 양식"에 머무르고 만다.

한편,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사용에 대한 미시적인 관찰과 동시에 거시적인 관찰을 한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되는 'criterion' 개념을 언어의 사용과 관계되는 그리고 의미의 이해와 관계되는 요소들과 함께 고찰해 보았다.

우리가 일단 받아들였던 'criterion' 개념은 정의적인(defining) 것이었다. 이는 판단의 충분조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criterion을 해석하고 나면 criterion과 판단의 관계는 논리적 참(de dicto necessity)이요, criterion과 이에 의해 지배되는 사태 사이의 관련은 협약적인(conventional) 것이 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태까지 'criterion' 개념을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의미론의 중심무대로 끌어올려 놓았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하지 않으면 여태까지의 우리의 논의는 모두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앞에서 이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한 터전은 이미 마련했다.

우리는 의미, 즉 사용에 관련하는 요소를 다섯가지로 분류했었다. 그중에서 criterion은 의미와 가장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이것이 그의 첫번째 이유이다. 그럴뿐만 아니라 criterion의 채택은 협약적이기는 하나 전적으로 자의적이지는 않다. 이것이 바로 두번째 이유이다. 이 두번째 이유를 성립시키는 사실의 밑바탕에는, 비트겐슈타인 자신의 지나칠 정도로 힘주어 이야기하는 사적 언어의 불가능성 논제(thesis of impossibility of private language)와 반행태주의의 입장이 깔려 있다는 점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45) BB, p. 25.

김영배

이미 이야기 했듯이, 'criterion'은 비트겐슈타인의 기술적 용어(technical term)이다. 그리고 사실은, '의미'도 그의 기술적 용어이다. 따라서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criterion'과 '의미'의 관계는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이는 마치,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리만 기하학으로 옮겨가서 직선과 평행선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과 흡사하다.

참 고 문 헌

I. Wittgenstein의 저술

- TLP :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tr. by Ogden, 1922.
BB : The Blue and Brown Books, Basil Blackwell, 1958.
PI :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tr. by Anscombe, MacMillan Co., 1953.
Z : Zettel, eds. by Anscombe and von Wright, tr. by Anscombe. Basil Blackwell, 1967.
OC : On Certainty, eds. by Anscombe and von Wright, tr. by Denis Paul and Anscombe, Basil Blackwell, 1969.

II. 기타 문헌

- Albritton, R., "On Wittgenstein's Use of the Term 'Criterion'," *Journal of Philosophy* 56 (1959), pp. 845-57.
Reprinted with a "Postscript (1966)" in : Pitcher, G. pp. 231-250.
Block, I. (ed), *Perspectives on the Philosophy of Wittgenstein*, Basil Blackwell, 1981.
Canfield, J.C., *Wittgenstein Language and World*, Univ. of Massachusetts Pr., 1981.
Hacker, P.M.S., *Insight and Illusion*, Oxford Univ. Pr. 1972.
Hallett, G., *A Companion to Wittgenstein's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Cornell Univ. Pr., 1977.
Kenny, A., "Criterion" in : *Encyclopedia of Philosophy* (N.Y. 1967)
_____, *Wittgenstein*, Penguin, 1973.
Kripke, S., "Wittgenstein on Rules and Private Language : An Elementary Exposition,"
in : Block, I. pp 237-312.
Moore, G.E., "Wittgenstein's Lectures in 1930-1931." in : *Philosophical Papers*, (London, 1959), pp. 252-324.
Pitcher, G. (ed.) *Wittgenstein : The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Anchor Books, 1966.
Quine, W.V.O., *From a Logical Point of View*, Harper & Row, 1963.
Shoemaker, S., *Self-Knowledge and Self-Identity*, Ithaca, 1963.